

# 삼겹살 '금겹살'... 수입육 '국산 둔갑' 판칠라

### 수입산 찾는 소비자 많아 판매액 27% 증가 농관원, 휴가철 원산지 표시 등 집중 단속

최근 삼겹살 등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수입산 대체 품목의 소비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삼겹살이 이른바 '금(金)겹살'로 불리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 수입산이 식당이나 매장에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23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 까지 이마트 전 매장의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했다. 매년 삼겹살 특수가 생겨나는 여름 휴가철임에도 국내산 삼겹살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30% 이상 비싸진대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별다른 시세 변동이

없었던 수입육은 판매액이 27%나 증가했다. 국내산 돼지고기값이 오르지 평소에는 잘 찾지 않던 수입산으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외식업체나 단체 급식 등에 주로 사용될 뿐 가정용으로 잘 팔리지 않던 수입산 삼겹살의 판매량이 이만큼 늘어난 것은 최근 국산 삼겹살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정보를 보면 7월 들어 국산 냉장 삼겹살 100g 소매가격은 전국 평균 2219원으로, 한 달 전 2015원보다 10.1% 올랐다. 1년 전 1908원보다는 16.2% 올랐고 평균 가격(1894원)보다도 17.1% 비싸다.

이렇게 삼겹살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모든(어미돼지) 감축 정책에 따른 사육두 수 감소와 돼지 설사병 유행 등으로 공급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닭·오리 등 가금류 수요가 돼지고기로 쏠린 것도 가격을 끌어 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주부 김모(50·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씨는 "지난주 미국산 돼지 목살을 500g당 5000원에 샀다"며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은 비싸서 당분간 수입산을 먹거나 아예 닭이나 소고기를 사먹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수입산을 찾는 소비자가 늘자 수입 삼겹살의 국내산 둔갑 판매가 우려되고 있다. 수입 돼지고기 가격은 국내산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해, 차익을 노린 원산지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12만835t이다. 이 중 삼겹살 수입량은 6만2490t으로 전년 동기보다 41%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 전남지원은 휴가철을 맞아 내달 8일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삼겹살 등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행락철을 겨냥해 한탕주의식 상술을 펼치는 '고의적 원산지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여 구속수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 육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입 삼겹살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행락철을 겨냥한 원산지 위반업체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8.32 (-0.61)	▲ 금리 2.46% (-0.05)
▲ 코스닥 563.14 (-1.79)	▲ 환율 1023.70원 (-0.70)



지난 2일 광주·18기범문화센터에서 열린 선대인경제연구소 부동산 특강은 당초 예정된 200명을 훨씬 뛰어넘는 시민이 참여,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 호남인들 부자 되세요

광주일보-선대인경제연구소  
8월 23일 광주 KT 타워서  
주택·주식 등 재테크 특강



광주일보와 선대인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제특강이 오는 8월 23일(토) 광주 서석동 KT 광주타워에서 열린다.

지난 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경제특강을 개최해 호평을 받았던 선대인경제연구소는 호남지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부응하기 위해 광주일보와 공동으로 '재테크 정보의 허실' 광주특강을 마련했다. 서울 강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실속 있게 준비된 이번 특강은 광주·전남은 물론 전주 등 인근 지역민에게도 내실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주거 상황에 맞는 내 집 마련 방안 등을 제시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지난 서울 강연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86%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는 점을 토대로 많은 참가자들이 궁금증을 가진 주택, 주식, 외환 등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공개할 방침이다.

첫번째 강연을 맡은 선대인 소장은 국내 가계 자산구조 분석을 통한 내 집 마련법을 상황별로 제시한다. 이어 장남부 선대인경제연구소 자산시정팀장이 보험과 저축, 연금활용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세번째는 심영철 웰시안닷컴 대표가 주식과 펀드, 채권 투자의 건강한 접근법이란 내용으로 청중

들을 만나며, 윤석천 경제칼럼니스트가 거시경제 흐름에 따른 외환 및 상품투자 전략을 쉽게 분석할 예정이다. '경제기사가 말해주지 않는 28가지' 저자이자 필명 '마포강변'으로 알려진 그의 강연은 실질적인 투자의 팁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선착순 150명을 모집하는 이번 강연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KT광주타워 지하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수강료는 지난 서울 특강보다 2만원 저렴한 9만원이며 선대인경제연구소 연구회원은 8만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에게는 강연슬라이드가 행사 전날까지 이메일로 제공된다.

수강신청은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페이지(www.sdinomic.com) 강연신청 게시판에서 등록하고 바로 결제할 수 있다. 문의 070-7561-7139, webmaster@sdinomics.com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나주 쪽·담양 대나무·보성 삼베... 전남 8개 시·군에 천연염색 체험마을

전남지역 8개 시·군에 천연염색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 생긴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정장 류봉걸)과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3일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1시·군 1사 천연염색 체험마을 지정식'을 갖고, 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했다.

천연염색 체험마을 운영기관은 ▲나주의 쪽(전염염색박물관) ▲담양의 대나무(황토명가) ▲광양의 밤껍질(쪽빛나들이) ▲보성의 삼베(한국천연염색협회) ▲무안의 양파껍질·연(연산오) ▲여수의 오리나무(목련공방) ▲함평의 감물·쪽(버락) ▲영암의 황토·쪽(에담은규방문화원) 등이다.

천연염색 체험마을은 앞으로 '보는 관광'을 '머무는 관광'으로 바꾸고, 염색 제품 판매를 늘리는 등 천연염색 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지난해부터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남 도종 향료를 활용한 2차 제품화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억원을 추가로 투자, 천연 염색기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3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열린 '삼성전자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에서 삼성전자 직원과 적십자봉사원들이 취약계층에 전달할 열무김치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4000만원을 후원해 진행됐다.

### 올 광주 청약통장 가입자 3만7000명 증가

43만5천여명... 증가율 전국 5위

올 상반기 광주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만7000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 등에 이어 전국 5위 수준의 증가율이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현재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665만3901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44만4079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지역은 올 6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43만5434명으로 지난해 12월(39만8996)과 비교해 3만6438명(9.1%)이 늘었다. 분양시장 호조가 이어진 대구가 6만8643명이 증가해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5만9818명), 부산(4만7187명), 경남(4만4102명) 순이었다. 전남은 지난해 말 32만5616명에서 올 6월 33만8696명으로 1만3080명(4.01%) 증가했다.

청약통장별로 살펴보면 주택청약종합

저축이 1404만9142명으로 57만4139명 증가했고, 청약저축은 91만7646명으로 7만398명 감소, 청약부금 34만327명으로 1만9646명 감소, 청약예금 134만6786명으로 4만166명 감소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기존 청약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낮은 금리와 통장 기능 등 기존 청약통장의 활용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최근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청약저축 등 4개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청약제도 개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 모든 가구가 한곳에!

취급품목  
사무용  
교육용  
의료용  
주방가구  
아파트실내가구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사이트 ID : gane82 / PW : 1111  
광양시 중앙로 494-1 (마동정수장 앞)

## 가치와 사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저희 법인은 기존의 보상 및 담보평가는 물론이고 부동산투자자문, 개발타당성분석, 기업가치 및 부동산 증권화에 수반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업평가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들과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과도 NET-WORK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부동산회사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정 대항감정평가법인  
**자산재평가 전담팀 운영**  
공정 가치평가본부 02-2051-2800

(주)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T.(061)375-6540 F.(061)375-6542